

2012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 '1억 소득 닭 키우기' 상담관 운영



본회는 지난 5월 4일(금)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서울특별시, MBC 주최, MBC 아카데미 주관으로 열린 '2012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에 참가해 육계사육 상담을 진행했다.

본회는 이번 행사에서 '1억 소득 닭 키우기'라는 상담관을 운영, (주)하림, (주)동우, (주)울품, (주)체리부로 등 4개 회원사의 사육부 담당직원을 2명씩 배치해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에게 육계사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 부스를 찾은 상담객들은 주로 육계산업의 구조 수익성, 계사 공사비용 및 자금조달 방법, 부지 선정 및 적정 사육규모, 회원사별 계약 가능 지역 등 육계사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상담했으며, 상담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본회 정병학 회장은 MBC 특별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육계 사육이 귀농 아이템 중 하나라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 홍보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번 행사는 상담석이 만석이어서 대기접수를 받아서 운영할 만큼 귀농을 생각하는 참관객들의 관심이 당초 예상보다 컸으며, 상담시간이 최소 20분에서 최장 1시간까지 이를 정도로 상담자의 상담수가 적극적이어서 향후 귀농 아이템으로 육계사육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육계농가 위탁운영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함은 물론 참가업체별로 신규 사육농가 확보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간 닭고기 6월호 편집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6월호를 통해 하반기 육계산업에 대해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입을 모았다.

▶ 닭고기(생닭 등) 포장처리 및 판매업소 위생점검 강화 알림

■ 닭고기 불법유통 행위 근절

최근 경기지역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반포된 닭고기를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여 불법 유통했다는 언론보도(SBS 8시뉴스, 2012. 5. 9)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기도에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 조치를 지시했으며, 검역검사본부 및 각 시·도에 이와 같은 닭고기 불법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닭고기(생닭 등)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축산물 위생 사법경찰관리제 시행(4. 18)에 따라 신규 지명된 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위·변조 등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지시했기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 아 래 -

가. 점검대상 : 식육(생닭 등) 포장처리업체 또는 판매업체

나. 주요 점검내용

- 미신고 영업행위(축산물영업장이 아닌 차량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금지
- 작업장 위생실태, 반포된 제품 처리방법
- 포장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미 포장 생닭 유통 금지)
- 허위표시(산란노계를 토종닭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여부 및 유통기한 위·변조 여부 등

▶ AI 평시 방역대책 추진

■ 육계사육농가 방역수칙 지속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011. 10~2012. 5)' 이후 AI 재발방지를 위해 그간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평시 방역대책 추진(2012. 6~9)'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1/2012 AI 특별방역대책 결과 및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알려왔기에 본회는 회원사에 평시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 래 -

□ 기본방향 : 2012. 6.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되, 가금류 사육농가 점검 및 질병 예찰 등 방역대책 지속 추진

- 위기경보 : 「주의」 단계 → 「관심」 단계
- 방역대책 상황실 : 평일에 한하여 운영하되,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주요 내용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 (현행) 8개반, 16명 → (평시) 4개반, 8명
- 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및 출입통제판 등 방역시설 설치 확대
- 철새도래지 탐방로 입구 발판소독조 및 철새 접촉 금지 안내판 부착
- 가금류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 방역수칙 등 집중 교육
- AI 대상·현장 가상방역훈련(CPX) 및 긴급행동지침(SOP) 보완 등